

대한민국 10장면 100년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 National Museum

한민족 두 나라의 슬픈 전쟁, 6·25전쟁

남한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자, 각각의 정부 수립 후 38선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충돌하던 남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된다. 국제연합군과 중국군의 참전 등 공방을 펼치던 남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고 37개월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 전쟁으로 세계는 동·서간 이념 경쟁이 가속화되었으며, 북한은 김일성 유일체제가 공고화 되었고, 남한 역시 이승만 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 같은 해 북한 역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분단이 고착화 된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낳은 아픔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전쟁기념관에는 6·25전쟁 당시 남한의 국군 소위로 참전한 형 '박규철'과 북한의 조선인민군 하전사로 참전했던 동생 '박용철'이 원주 치악고개 전투에서 극적으로 만난 실화를 소재로 한 청동 조각상이 있다.

6·25전쟁 흐름



국제연합군(약칭 유엔)의 참전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약칭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였다.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로 선언하며, 북한에 즉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유엔 안보리는 '그들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6·25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한국 파병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 때 유엔회원국 16개국이 전투병력을, 5개국이 의료 또는 시설을 지원하였다. 이는 유엔의 첫 파병이었다.

전쟁 빌랄 이후 1년이 지나자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은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951년 7월 휴전회담을 시작하였다. 기나긴 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37개월간의 전쟁은 끝났다.

6·25전쟁 참전국 기념우표

6·25전쟁 당시 국제연합 소속 참전국과 원조국에 대한 감사 의미로 1951년 9월 15일에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전체적으로 오른편에 태극기, 왼편에 참전국의 국기가 놓인 양식이다. 우표 중앙에 파란색은 UN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녹색은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도안으로 쓰였다.



※ 어떤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는지 찾아보세요.

나만의 태극기

무운장구 태극기는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정할 당시 조국 수호를 맹세하며 서명한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우측에는 '무인으로서 운수가 길고 오래가기를 바란다.'는 뜻의 무운장구武運長久가 적혀있습니다. 깃발에 남겨진 내용을 통해 용사들의 의지와 기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래의 태극기에 담고 싶은 마음을 남겨보세요.





북한군 남침 기사

경향신문에서 전한 '괴뢰군전면남침기도'
1950년 6월 26일 / 39.2×5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1950년 6월 26일 발간된 경향신문이다.
'괴뢰군전면남침기도(僥倖軍全面南侵企圖)'라는 제목으로, 6월 25일 오전 5시부터 개성, 강릉, 동두천, 의정부, 춘천 등의 상황과 북한행 열차 운행 전면 금지 등 북한군의 남침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무운장구 태극기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태극기
1950년대 / 86.6×6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이 태극기는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에서 공보한 국기제작법의 도안과 유사하다. 6·25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정할 당시 조국 수호를 맹세하며 서명한 태극기이다. 깃발에 남겨진 내용을 통해 용사들의 의지와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인천에 상륙하는 군인들

인천항 앞바다에 당도한 미 7보병사단 장병
1950년 9월 18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제공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막아내고,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 사진은 9월 18일 인천에 상륙한 미7보병사단 장병을 찍은 것이다.



폐허가 된 서울

격전으로 파괴된 서울의 모습
1950년 11월 1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제공
전쟁 중 가을 등 국민의 재산 피해도 대단히 컸다.
남한에서만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다.



정전협정 제2권 지도

군사정전협정의 제2권
1953년 7월 / 56.2×72.5×0.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군사정전협정의 제2권이다. 1권은 협정에 관한 주요 내용이 들어있으며, 2권에는 비무장 지대와 관련한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영화

"내가 마지막 본 흥남" 포스터

6·25전쟁 중 흥남을 소재로 한 영화 포스터

1983년 제작, 1984년 4월 14일 개봉 / 51.8×75.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6·25전쟁 중 흥남 철수를 소재로 한 <내가 마지막 본 흥남>의 포스터이다. 월남한 남자가 헤어진 아버지를 찾는 이 영화는 제22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반공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6·25전쟁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

도순국민학교 4학년 원두현 그림
1950년대 / 27.2×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1950년대 도순국민학교(현 도순초등학교) 4학년 원두현 학생의 그림이다. 6·25전쟁 당시 전장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군인이 탄 탱크와 군용차, 비행기 등이 그려져 있다.



6·25전쟁 참전국 기념우표

1951년 발행된 6·25 참전 기념우표
1951년 / 6.8×3.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6·25전쟁 참전국들을 기념하여 1951년 발행한 우표이다. 유엔은 6·25전쟁 발발 3일 뒤인 28일 제2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연합군을 결성하여 파병할 것을 결의하고, 전투와 의료지원에 동참했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태극기, 원판에 참전국 국가가 놓인 모습이며, 파란색은 유엔표장과 비둘기, 녹색은 자유의 여신상이 도안으로 쓰였다.

100글자로 담는 '6·25전쟁'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 모두 보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은 1회에 두 장면씩 총 다섯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긴 여정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까지 계속되는 10장면의 전시설명서에 스템프를 모두 찍어, 마지막 전시가 끝난 뒤 제출해주신 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 선착순 10명/스탬프는 안내데스크에 마련되어 있음

*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2월 1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 게시.

2.28.~4.14.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5.13.~6.16.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7.15.~8.25. 광복과 훈란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9.23.~10.27. 6.25전쟁

4.19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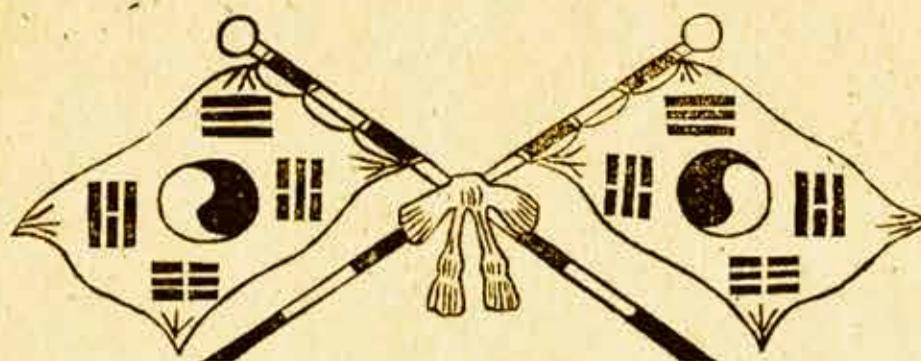
11.11.~12.15. 5.18

민주항쟁과 촛불

스
탬
프

❖ 100글자 내외로 6·25전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세요.

❖ 전시기간(9.23.~10.27.) 중 국립광주박물관 이메일(gnmcd@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글을 뽑아 박물관 누리집에 올리고 선물도 드려요. *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 참조



민주국가의 시작! 4·19혁명

4·19 혁명은 1960년 4월에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벌인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항쟁이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1960년 4·19혁명까지 12년동안 이승만 정권이 집권했다.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최소의 형식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부정선거로 치러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었다. 4·19혁명은 단순히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 이승만 독재체제에 대한 총체적 불만의 표출이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로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렸다.

단기 4293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학생 선언문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간基幹은 자유다. … 이제 막 자유의 전장엔 불이 불기 시작했다.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투쟁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慘屍를 보라! …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10장면 100년

국립광주박물관
Gwangju National Museum



광주에서의 민주혁명



광주 '곡랫민주주의 장송' 봉기

3·15선거 당일 선거를 포기한 민주당 참관인 70여명과 100여명의 당원이 백지를 사다 백건白巾을 만들어 쓰고 장장葬章을 두르고 '곡랫민주주의 장송'이라는 현수막을 두 개 만들어 장송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 주권을 박탈당한 시민 천여명이 순식간에 합세해 "민주주의는 절명하였다.", "우리의 자유를 찾자."고 외치며 도청으로 향하는 도중 급거 출동한 무장 경찰대 300여 명의 난폭 속에 일대 충돌이 일어났다.

4·19혁명을 노래한 시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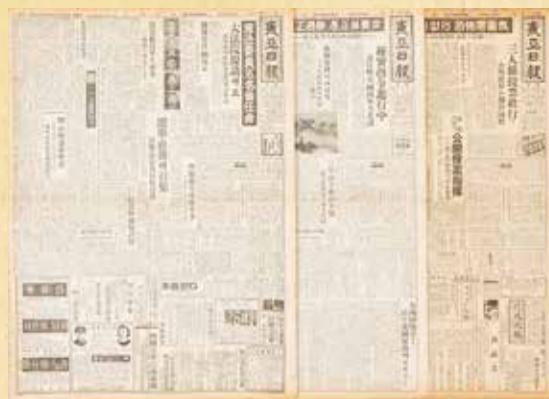
'광주'에는 4·19로를 따라 달리는 419버스가 있다!

광주고등학교 앞 길은 4·19혁명의 뜻을 기리기 위해 4·19로로 정해져 있다. 광주고등학교 안에는 기념탑도 있어 4·19혁명 당시 광주에서의 민주항쟁을 느낄 수 있다.



1960년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시인을 비롯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4·19혁명을 기억하며 시를 썼습니다.

우리도 4·19혁명을 생각하며 시를 써 봅시다.



1960년 3·15선거 전 상황 기사

동아일보에서 전한 3·15선거 전 상황
1960년 3월 12일~14일 / 39×53.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1960년 3월 12일~14일 발간된 동아일보다. '헌법위원 5명을 임명, 선거 직후에 소집', '설법한 공기애 싸인 전남', '부정선거 시정을 요구', '일찌기 없었던 공포 분위기' 등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직전 어수선했던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광주 '곡랫민주주의' 장송' 봉기

부정선거에 맞선 첫 저항
1960년 3월 15일 12시 45분
광주4·19민주혁명기념관 제공

1960년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 광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정선거에 맞선 첫 저항이 일어났다.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장송 봉기에 광주의 민주당원,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김주열 시신 발견 사진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주검
1960년 4월 11일
3·15의거기념사업회 제공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 시위 당시 행방 불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눈에서 뒷머리 까지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전국으로 확산된 4·19혁명의 사발점이 되었다.



민주혁명의 기록

동아일보에서 발간한 4·19혁명 기록집
1960년 6월 1일 / 48.8×33×2.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6월 1일 동아일보에서 발간한 기록집으로 4월 19일부터 4월 26일 대통령 하야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을 취재하고 촬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표지는 이승만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에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4·19혁명 관련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에서 전한 한국의 4·19혁명
1960년 5월 1일 / 37.8×5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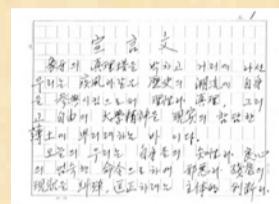
한국 학생들의 장면을 1면에 실은 1960년 5월 1일자 뉴욕타임즈이다.



고려대학교 학생 피습 사건

천일백화점 앞에서 피습당한 고려대학교 학생
1960년 4월 18일
3·15의거기념사업회 제공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 평화행진을 하다가, 유지광 등 정치 강파에게 피습을 당한다. 이 사건으로 주역이 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으며, 목적으로 부정선거 규탄에서 독재 타도로 전환되었다.



4·19혁명 서울대 문리대 학생 선언문

4·19혁명 서울대 문리대 학생 선언문 필사본
1960년 4월 1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960년 이승만정권의 독재와 무능에 항거한 4·19혁명 관련,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선언문이다.



광주고등학교 학생 교문 돌파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문 돌파 순간
1960년 4월 19일
광주4·19민주혁명기념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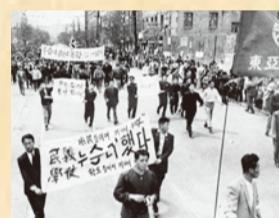
4월 19일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광주 지역에서는 광주고 학생 이외에도 광주공고, 광주농고, 광주상고 학생들이 혁명에 참여하였다.



정부를 규탄하는 어린이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어린 학생들
1960년 4월
3·15의거기념사업회 제공

4월 19일 귀가하던 10세 전한승군은 시위대에게 환호를 보내다 경찰의 발포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어린이, 중학생들이 달려와 '부모형제들에게 충무리를 대지 말라'는 현수막을 들고, '어린 피에 보답하라'고 외쳐 군인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승만 퇴진에 환호하는 사람들

승리·평안·질서를 외치며 사태수습에 나선 시위대
1960년 4월 26일
3·15의거기념사업회 제공

4·19혁명의 결과, 시위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승만은 4월 26일 퇴진선언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한다. 어제 까지 독재 타도를 외치던 시위대들은 국민들의 평안, 질서를 외치며 사태수습에 직접 나섰다.



4·19혁명 1주년 추도식 전단

공중에서 뿌려진 4·19혁명 1주년 추도시
1961년 4월 19일 / 21.4×16.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億夷! 追悼追悼 4·19 1주년 추도식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전단지로, 4·19혁명 1주년 기념행사 학생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추도시이다. 상단에 '1961. 4. 19. A.M 9시 종로구 견지동 공중에서 살포'라는 기록이 있다.

100글자로 담는 '4·19혁명'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 모두 보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은 1회에 두 장면씩 총 다섯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긴 여정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까지 계속되는 10장면의 전시설명서에 스템프를 모두 찍어, 마지막 전시가 끝난 뒤 제출해주신 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 선착순 10명/스탬프는 안내데스크에 마련되어 있음

*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2월 1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 게시.

2.28.~4.14.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5.13.~6.16.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7.15.~8.25. 광복과 훈란

현법 제정과 정부 수립

9.23.~10.27. 6.25전쟁

4·19혁명

11.11.~12.15. 5.18

광주민주화운동

스
탬
프

◆ 100글자 내외로 4·19혁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세요.

◆ 전시기간(9.23.~10.27.) 중 국립광주박물관 이메일(gnmcd@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글을 뽑아 박물관 누리집에 올리고 선물도 드려요. *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 참조